

A Study on Origin of Hell Narrative in Vedic Literature: Analysis of Bhṛigu Episode in the *Jaiminīya-Brāhmaṇa*

Chinyoung Kim^{*}

Sog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hṛigu episode, which is the first to describe hell in Vedic religion. I would like to reveal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hell in Vedic literature, focusing on the intuitive hell and symbolic hell that Bhṛigu experienced in the afterlife.

[Contents] God Varuṇa sends his son Vṛgu to the afterlife to pass on wisdom (prajña) as insight into the nature of reality to him. The hell narrative of this episode consists of the terrible intuitive hell world where humans eat humans, which Bhṛigu witnesses, and the symbolic hell where rivers of blood and angry men appear. This paper sequentially analyzes its main content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of the Agnihotra ritual, the method of atonement (niskṛti) to avoid the suffering of hell taught by Varuṇa.

[Conclusions] In the Bhṛigu episode, the Brahmins, who are the subjects of the narrative, project their ritualistic worldview and weave the storytelling of a cruel hell. The narrative structure provides the value of ceremonial atonement and ceremonial knowledge through various metaphors and figuration of hell, providing solutions for the Brahmana era.

[Keywords] Hell, Bhṛigu, Atonement, Veda, Afterlif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A2A01048294).

*** Corresponding to** Chinyoung Kim (Research Professor, Richard Schaeffler Institute, Sogang University)

E-mail : purohita@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베다문헌에 나타난 지옥 서사의 기원:
*Jaiminīya-Brāhmaṇa*의 브르구에피소드 분석

김진영

서강대학교 리하르트세플러연구소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다종교에서 최초로 지옥을 서사하는 브르구(Bṛghu)에피소드를 분석하는데 있다. 브리구가 사후세계에서 경험한 직관적 지옥과 상징적 지옥을 중심으로 베다문헌에 나타난 지옥의 구성형식과 원리를 통해 서사적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바루나(Varuṇa)신은 아들 브르구에게 실재의 본질을 아는 통찰력으로서의 지혜(rajña)를 전수하고자 아들을 사후세계로 보낸다. 본 에피소드의 지옥 서사는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끔찍한 직관적 지옥과 피의 강, 분노의 남자가 등장하는 상징적 지옥으로 구성된다.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지옥의 양상들을 분석하고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속죄(niskṛti)와 아그니호트라(agnihotra)제에 대한 지식의 특성을 살펴본다.

[결론] 브리구에피소드는 서사의 주체인 브라만들이 자신들의 제식적 세계관을 투영해 지옥의 잔인한 스토리텔링으로 직조한 것이다. 다양한 지옥의 은유와 구상화로 제식적 속죄와 제식적 지식의 가치를 서사구조로 가공하면서 브라흐마나의 시대적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지옥, 브르구, 속죄, 베다, 사후세계

I. 서론

베다문헌에서 지옥의 개념은 리그베다의 낙천적 세계관이 바뀌면서 형성된다. 본래 베다인들은 죽어서 천계(天界, svarga loka)에 올라 조상과 불멸의 시간을 누릴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 이후 불멸이 지속될 수 없다는 가정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천계에서 조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존재론적 위기감이 발생한다. 불멸과 천계에 대한 불안감은 죽은 후에 덕행(sukṛt)을 행한 자가 가는 세계 뿐 아니라 악행(duṣkṛt)을 한 자가 가는 상대적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Merh, 1996: 135-136). 천계가 신성한 빛의 세계라면 지옥(naraka loka)은 부정한 어둠의 세계로 묘사되고, 사자(死者)는 천계와 엇갈린 방향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에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유까지 발생한다. 브라흐마나문헌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죽음을 재사(再死, punarmṛtyu)라 부르며 어둠 속에 남겨지거나 불멸의 상태를 얻지 못한 채 ‘반복되는’ 출생과 같다고 직유한다(Day, 2006: 133).

이러한 브라흐마나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베다의 지옥 서사가 시작되는데, 『자이미니야 브라흐마나』(Jaiminiya-Bṛāhmaṇa, 이하 JB로 표기)의 브르구(Bhrgu)에피소드, 혹은 브르구설화가 그 시작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서사가 『사타파타 브라흐마나』(Śatapatha-Bṛāhmaṇa, 이하 SB)에서도 나타나며 두 이야기 모두 바루나(Varuṇa)신의 아들 브르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베다학습기(Brahmacarya)를 마친 오만한 브라만 브르구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자 아버지 바루나는 아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를 저승으로 보낸다. 끔찍한 저승을 다녀온 브르구가 자신이 경험한 총 여섯 개의 공간에 대한 아버지와의 문답법(問答法)을 통해 지옥과 같은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저승에서 브르구가 처음으로 목격한 세 장소는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잔혹한 공간이기에 이를 직관적 지옥이라 부른다. 나머지 세 곳은 상대적으로 다중적이고 제식적 비유로 가득한데 그중에서 다섯 번째 세계가 상징적 지옥으로 등장한다.

본고는 지옥서사가 조금 더 분명한 JB를 주텍스트로 삼아 브르구가 방문한 저승의 지옥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베다 상히타(samhitā)의 시구에 대한 해석서인 브라흐마나의 문헌학적 특성상 내용은 주로 제식(祭式, yajña)과 제문(祭文)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JB의 경우 사마베다(Sāma-Veda) 계열의 브라흐마나로서, 그 안에 아그니호트라제(Agnihotra 祭)에 대한 토론과 제식의 중요성을 찬미하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와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JB(1.42-44)의 브르구 서사는 SB(12.9.1)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과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 보테위츠는 두 브라흐마나의 서사가 공통적 근원을 갖고 있으며 JB가 SB보다 신층이라고 주장한다.¹⁾ 천계로 묘사되는 바루나의 세계가 등장하는 JB버전이 후대이며, 문자적 대응과 부

1) 보테위츠는 JB의 고전적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 문헌의 최초 연구자인 Burnell이 JB보다 SB가 분명히 후대 문헌일 것이라는 학계의 정설을 세워놓고 이에 대한 원전적 증거없이 모호한 언급만 하고 있을

자간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부분(JB 2. 160)의 실례를 들면서 SB의 아그니호트라제 부분을 각색한 것이 JB버전이라고 추정한다(Bodewitz, 1973: 102; 1990: 21). 연대기의 경우 도니저는 기원전 900년의 텍스트로 규정하는데 보데위츠는 너무 이르다고 평가한다(Doniger, 2022: 9-10; Bodewitz, 1990: 19). 최근 연구성과에 해당되는 Schwerda(2017: 3)도 JB를 기원전 800년경 중기 베다텍스트로 분류하지만 추가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슈미트하우젠은 이러한 문헌학적 배경 외에도 두 판본의 학파(學派, śākhā)의 거점지역이 JB는 갠지스강 유역 평원 남서쪽, SB는 해당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두 학파의 지리적 배경이 중부 갠지스강 평원, 즉 자이나교와 불교의 발생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슈라마나(śramaṇa)사상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지시하고 있다(Schmithausen, 2000: 286).

JB의 문헌연구 뿐 아니라 브르구 서사연구는 보데위츠의 선행연구가 압도적이다. 그의 박사논문인 “Jaiminiya Brāhmaṇa I, 1-65”는 JB의 치밀한 번역과 해석서로서 해당 부분에서 브르구 서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Bodewitz, 1973: 99-109), Weber(1855), Burnell(1878), Oertel(1892), Levi(1898), Caland(1919), Lommel(1950, 1967)에 이르는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와 분석자료도 제공하고 있다(Bodewitz, 1973: 42-44). 후속연구인 “The Daily Evening And Morning Offering (Agnihotra) According to the Brāhmaṇas”에서도 JB와 SB의 브르구 서사의 요약본을 별도로 수록하고 있어 비교연구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Bodewitz, 1976: 164-166). 보데위츠 외에도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O’Flaherty(1985), Tsuji(1978), Onozawa(2002), Schwerda(2017)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JB의 원문은 Oertel(1893)을 주로 사용하고, 해석은 Bodewitz(1973, 99-109), O’Flaherty(1985, 32-35)를 중심으로 Tsuji(1978, 22-27)을 참고한다. 또한 병렬텍스트인 SB는 Eggeling(1882)의 번역을 기준으로 Goto(2008)을 대조한다.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JB의 브르구 에피소드에 나타난 지옥의 서사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은유와 신비한 제식적 세계관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9년 크로아티아에서 주최된 제 7회 국제 베다위크숍에서 켈커타대학의 마우 다스 굽타가 브르구설화에 관한 초록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B의 브르구스토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원전의 고대성(antiquity)을 탐구하고 전 세계의 고대 민담에서 유사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또한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제자가 숨겨진 실재성을 이해하도록 스승이 은유들(metaphors)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는 사람을 잡아먹는 남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우는 동물을 스스로 요리하는 남자를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을 삼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쌀과 보리를 요리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인간의 모습을 한 조용한 곡물은 이생에 잡아먹힌 대가로 저승에서 자신을 먹는 사람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Caland의 경우도 JB가 더 오리지널이라는 인상을 주며 구성력과 독창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지만 뒷받침할 만한 문헌학적 증거는 없다. Lévi의 경우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두 판본이 독립적이라는 결론만 내릴 뿐이다(Bodewitz, 1973: 101).

잡아먹는다. 브르구서사에 사용된 은유는 이론적 학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cognition)을 포착하게 한다(Gupta, 2019: 19).

이러한 문학적 은유와 상징성으로 인해 브르구에피소드는 인도종교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평가되기도 한다(O'Flaherty, 1985: 32). 본고는 JB의 지옥의 서사적 특징과 세계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에 집중하여 브리구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JB에 등장하는 세 가지 직관적인 지옥과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지옥을 차례대로 해석하여 브라흐마나의 제식적 세계관에서 재현된 두 형태의 지옥서사의 목적과 투영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서사화된 지옥은 브라흐마나시대의 고통의 양태, 특히 사후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근거하며, 그 잔인한 참상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과거,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미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브르구가 목격한 지옥의 윤리성을 보복과 속죄의 문제로 검토한다. 이 설화는 신이 죄지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어 고문하는 무서운 에피소드라는 일차원적 해석이 가능하다(Merh, 1996: 137-138). 하지만 브르구에피소드가 오랫동안 베다의 지옥서사의 원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내세의 '보복'이라는 Keith(1959: 844)와 Macdonell(1974: 169)의 고전적 주장에 근거한다. 따라서 보복의 문제를 JB에 나타난 속죄(niskṛti)의 윤리적 맥락으로 분석하여 후대 카르마(karma)사상의 도덕적 측면과도 비교해 본다. 이 과정에서 속죄의 해석에 반대하는 Lommel, Obeyesekere, Doniger, Smith의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옥은 나쁜 카르마를 축적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고통의 장소이지만 브르구가 방문한 지옥이 죄와 벌의 공간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사의 주체인 브라만(Brahmin)들의 제식적 세계관 내에서 지옥 서사의 저자의 도를 살펴본다. 제식은 베다인들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해준다. 제사의 극복과 지식의 해법구조도 JB에서는 아그니호트라제식으로 완성된다. 브라흐마나문헌의 독특한 죽음, 제물과 음식의 구조, 청정과 부정 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제식의 가치관에 내재한다. 브라만과 제식주의자들은 절대적 불살생(不殺生, ahimsā)을 주장하는 슈라마나사상과 옹전하면서 브르구서사를 통해 제물살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시대적 전략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를 간략하게라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JB의 직관적 지옥

JB의 브르구에피소드에서 브르구는 '이 세상을 떠났다(pararn lokam jagdma)'고 암시될 뿐 그가 죽었다거나 지옥을 뜻하는 나라카(naraka)에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Bodewitz, 1973: 105). 하지만 JB(1.42)에서 브르구가 처음으로 목격한 세 지옥의 잔인함은 이

곳을 자연스럽게 지옥이라고 칭하게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데위츠의 해석에 근거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무엇을 (봤는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토막내고 그를 삼켜 먹었다. 그는 아!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 바루나에게 물어보시오.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두 번째로 무엇을 (봤는가)? 어떤 사람이 울부짖는 (다른) 사람을 삼켜 먹었다. ‘예’라고 그는 말했다. 세 번째 세계는 어떠했는가? 한 남자가 소리를 내지 않는 (다른) 남자를 삼켜 먹었다. 그렇다.

이어지는 JB(1.43)에서 이승으로 돌아온 브르구에게 바루나는 아들이 본 세 공간에 대해 설명해준다. 브르구가 목격한 장면은 차례대로 나무의 세계,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이며, 바루나는 이 세계에서 지옥과 같은 잔인한 일이 발생한 이유를 순차적으로 알려준다.

이 세상에서 알지도 못한 채 아그니호트라제를 바치고 나무(vanaspatī)를 베고 불에 태우는 자들, 인간의 형상(puruṣa-rūpa)을 한 나무들이 저 세상에서 그의 차례에 (그 방법대로) 잡아먹는다 (kṛtvā pratyadanti).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채 아그니호트라제를 바치고 울부짖는 가축(paśava)을 요리하는 자들, 인간의 형상을 한 가축들이 저 세상에서 그의 차례에 (그 방법대로) 잡아먹는다.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한 채 아그니호트라제를 바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는 쌀과 보리(vṛīhiyavā)를 요리하는 자들, 인간의 형상을 한 쌀과 보리는 저 세상에서 그의 차례에 (그 방법대로) 잡아먹는다.

세 군데의 지옥에서는 현생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나무, 동물, 식물)이 후생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론적 전도(顛倒, reversal)가 발생한다. 외형적으로는 나무, 동물, 식물의 모습이지만 이 존재들은 제식에 사용되는 제물(祭物, paśu)로, 정확히 말하면 불쏘시개, 가축, 쌀과 보리라는 제식적 범주에 속한다. 더 나아가 이 존재들은 인간이 음식(anna)으로 섭취하는 과정과 관련된 영양학적 물질이다. 나무는 음식의 조리 과정에 필수재료이고, 동물은 제물에 부적합한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 특히 소로 대표되며, 식물은 쌀(vṛīhi)과 보리(yavā)라는 가장 정화된 농경작물(grāmyāni)로 지시된다. 특히, 동물과 식물의 경우 야생성이 없는 정화된 가축과 문명화된 농작물로 범위를 한정된 것은 제식주의자들이 제장의 신성한 불에 던져지는 동식물의 존재론적 위계에 주의를 기울여 의도적으로 구분했음을 짐작케 한다.

브르구서사에서 발생하는 식인(食人)사건이 잔인한 근원적 이유는 ‘보복’의 공포 때문이다. 이생의 죄가 사후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보복을 웨르텔은 탈리오법칙(lex talionis),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 부른다(Oertel, 1893: 234-8; O’Flaherty, 1985: 39 재인용). 동해보복은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피해와 동일한 손해를 가하는 보복으로, JB에서 이생의 나무가 ‘인간의 형상

(*puruṣa-rūpa*)’을 취하여 전생에 자신을 벌목(伐木)한 인간을 자신을 해친 동일한 방법, 토막내서 먹는 동일한 행위로 보복한다.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며 잡아먹힌 가축이 저승에서 울부짖는 인간을 잡아먹고, 이생의 쌀과 보리가 자신을 잡아먹은 인간을 소리없이 먹어치우는 동일한 형태의 보복이 행해진다. 이러한 보복의 개념은 JB(1.43)의 *pratyadanti*, SB(11.6.1.3)의 *pratisacāmahā*로 서술된다. JB(1.43)의 *pratyadanti*와 정확히 매칭되는 용어는 ŚB(12.9.1.1)에 사용된 *pratyatti*이다(Gupta, 2019: 19). *pratyatti*는 이생에서 잡아먹힌 음식이 저승에서 그 대가로 음식을 먹는다는 역전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두 단어 모두 ‘상대’를 의미하는 접두사 *prati*가 사용되고, ‘먹다(eat)’라는 동사 *ad*의 격변화가 합해져 ‘상대를 먹는다’로 해석된다. JB의 경우 앞에 ‘*kṛtvā*(그 원인으로 행위가 그렇게 되다)’가 더해져 ‘(전생의) 행위에 근거해서 상대를 먹는다’는 보복의 의미가 강화된다. SB에 사용된 *pratisacāmahā*도 ‘상대를 쫓아가서 복수한다’는 노골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잡아먹는 행위가 복수를 위한 보복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롬멜은 사후세계를 복수나 보복이 아닌 전도(reversal)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승은 이생이 자동적으로 전도된 거울세계로, 베다문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 세계는 장례제의 제례적 행위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신을 숭배하는 의례에서 성사(聖絲)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착용하여 오른손을 자유롭게 하지만, 사자(死者)를 위한 의례를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착용하여 가급적이면 왼손으로 제례적 행위를 해야 한다. 신의 숭배는 오른팔이 자유로울 때 오른 무릎을 구부리지만 사자 숭배는 이와 반대 방향을 취한다. 신의 숭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태양의 경로를 따라 돌고, 사자의 숭배는 반대로 돈다. 짝수는 신에게 홀수는 아버지(조상)에게, 신들에게 ‘예’인 것은 아버지들에게는 ‘아니오’가 된다(Lommel, 1950: 101).

롬멜은 당시의 저승세계가 윤리적 사고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내세에서 발생하는 역방향적 고통은 불의(不義)의 형벌이 아니라 ‘불의한 저승세계’²⁾라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당시 일반인들은 사후세계의 고통의 역전에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전도된 사후세계’라는 사고는 대중적인 것이며 베다 학파들이 이 개념을 차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Lommel, 1952: 202). 그는 1950년 자신의 논문 JB의 평행구절로 평가되는 『카우슈타키 브라흐마나』(*Kauṣītaki-Brāhmaṇa*)(11.3)가 누락된 것을 아쉬워하며 해당구절을 삽입한 1952년 부록편을 간행한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동물을 먹고 즐기듯, 저 세상에서는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으며 즐긴다.

2) 불의한 저승세계는 니르타(*nirṛta*)를 지칭한다. 천계가 자손들의 공양음식(*svadhā*)이 가득한 즐거운 르타(*rta*)의 공간이라면, 니르타는 음식이 순환되지 못하고 공급이 끊기는 곳, 공급이 끊어져 조상이 신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르타가 없는 공간이다(Lopez, 1997: 17).

그는 여기서 아침제례(*prāitaranūdka*)로 그들을 이긴다. 여기서 이기면 그들은 저 세상에서 그를 먹지 않고, 보답으로(*in requita*) 그를 즐기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것처럼, 저 세상에 서도 먹어서 즐기게 된다.³⁾

이렇게 본다면 저승에서 음식이 인간을 먹는 전도성은 복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리바꿈이며, 제식을 바친 자에게는 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석된다. 전도의 모티브는 JB의 주석가들이 *pratyadanti*를 ‘자신의 차례에(*in turn*) 먹는다’ 혹은 ‘대가로(*in return*) 먹는다’는 두 형태로 해석한 부분과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다. 전자의 해석은 Oertel, Bodewitz가 대표적이며, 후자의 해석은 Doniger, Schwerda, Tsuji를 꼽을 수 있다. 전자의 해석이 자리바꿈의 전도성을 강조한다면, 후자의 해석은 제식적 행위의 ‘대가’나 ‘보상’의 개념을 도출한다. 도니저가 브르구가 목격한 지옥의 첫 구절을 “그 나무들이 저승에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석한 것에서 대가는 보상과 동일한 개념이다. 특히 스미스는 브라흐마나시대에 나타난 독특한 보상(補償) 관념을 제시하면서 도이센의 언술을 인용한다.

제식의 성과는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며 제식을 바치지 않으면 고통과 처벌이 내려진다. 베다에서 경건한 자에게 무조건 보장되었던 행복은 브라흐마나시대에 이르러 사후의 대가(*rewards*)와 형벌(*punishments*)로 미루어지며 제식과 제례적 행위에 비례하는 다른 세계, 즉 저승의 보상(補償, *compensation*) 개념을 공식화한다(Deussen, 1966: 324; Smith, 1985: 301 재인용).

보상의 개념에서 주의할 부분은 보상(*compensation*)과 대가(*reward*)가 유사하고 우리말에서 동음이의어로 자주 혼용된다는 점이다. 보상(補償)이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충해주는 금액적 개념이라면, 보상(報償)은 상대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상으로 구분된다. Tsuji의 경우는 JB의 원문에서 보상을 ‘값음[報]’으로 풀이하는데 도이센의 견해로는 후자인 보상(報償)이 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생의 나무, 식물, 동물이 저승에서 자신의 차례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상(報償)’받는다라는 복합적 해석도 가능하다.

III. 상징적 지옥과 제식적 암시

브르구는 직관적 지옥 세 군데를 체험한 후 다섯 번째 세계에서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지옥을 만나게 된다. 이는 JB(1.44)에서 나란히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대조되는 세계로 묘사된다.

3) Keith(1919: 409)의 동일구절의 번역을 참조한다. 뮐멜은 Keith가 각주에서 브르구설화가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Lommel, 1952: 201). 참고 Bodewitz(1973: 100).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나란히 흐르는 두 강 중에서, 하나는 피, 다른 하나는 기(ghṛeḥ, 정제버터)가 흐른다. 검고(kṛṣṇa) 벌거벗은(nagna) 남자가 곤봉(musala)을 들고 피로 가득 찬 강과 정제버터가 가득한 강을 지켰고, 그곳(강)에서 황금빛 사람들이 황금잔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모은다. ‘예’라고 그는 말했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알지 못한 채 아그니호트라제를 바치고 브라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로 가득 찬 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뭉둥이를 든 검은 피부의 벌거벗은 남자는 분노(krodha)이다. 그것(피)은 참으로 그의 음식(anna)이다.”

피의 강을 지키는 남성은 검은 피부에 벌거벗은 채 곤봉을 든 ‘분노’라 불리는 자이다. 이 구절과 대응되는 SB(11.6.1.13)에서는 이 남자를 검은 피부(kṛṣṇa), 노란 눈(pīṅgākṣo), 철퇴를 손에 든(daṇḍapāṇirasthāt) 분노로 표현한다. 이 남성은 두 문헌 모두에서 죄지은 자를 처벌하는 도구를 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보데위츠는 이 도구를 JB는 곤봉(club), SB는 지팡이(staff)로 해석한다. 남성은 맥락상 야마(Yama)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가 손에 든 무기는 후대 야마의 도상학(圖像學)에서 표현되는 해골모양의 철퇴(Kapala daṇḍa)로 추정된다. 야마신은 후대에 인간의 죄를 처벌하는 지옥의 신으로 고정되는데, 이전에는 베다에서 주로 브라만 사제와 제식세계의 수호자로서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JB에서 그의 이름인 ‘분노’는 브라만을 상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느끼는 보복 감정을 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Bodewitz, 1973: 109). 베다에서 ‘죄’를 지은 자가 지옥에 간다는 발상은 브라만과 관련된 악행을 처벌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낙천적이던 베다의 세계관에서도 명확하게 죄나 악으로 언급되는 것은 브라만계급에 대한 모욕과 상해에 관한 것이다. 브라만에게 침을 뱉거나 모욕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브라만에게 절름발이 소를 주거나 브라만의 소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은 모두 위중한 죄로 취급하였다(Bodewitz, 2019: 139).

브라만에 대한 죄는 JB(1.44)에서는 브라만의 피를 짜내 만들어진(brāhmaṇasya lōhitamutpīḍayanti) ‘피의 강’과 ‘인격화된 분노’로 은유된다. 분노라 불리는 남자의 음식(anna)이 피(lōhita)라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베다에서 지옥의 첫 문장으로 평가받는 『아타르바 베다』(Atharva-veda, 이하 AV)(5.19.3)의 나락(奈落, naraka)의 묘사와 거의 동일하다. 나락은 어둠의 구덩이(kāṭā)인 지옥세계로 이곳의 죄인은 피가 흐르는 강 옆에 앉아 머리카락을 삼키는 처벌을 받는다(Kim, 2013: 23). 나락이라는 종말론적 지옥은 브라만의 상해자가 가는 곳, 음식에 가장 부적합한 피와 머리카락으로 가득 찬 곳, 가장 부정(不淨)하고 오염된 장소로 묘사된다(Lopez, 1997: 18). AV가 사회적 계급의 윤리를 깨는 것이 ‘죄’라는 점을 나락의 부정한 이미지로 서술했다면, JB의 지옥서사는 그 이미지는 그대로 계승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무서운 심판자로 구상화시킨다. JB의 상징적 지옥은 ‘피의 강’의 메타포를 통해 강렬하게 포착되고, 이는 아그니호트라제를 집행하는 브라만과 사제들에게 피를 짜내는 고통을 준 자들이 사후에 피의 강에 앉아 분노에 찬 야마에게 벌을 받는다는 지옥의 서사구조로 정착된다.

야마로 상징되는 남자의 검은 피부는 같은 구절에 나타난 황금색, 황금인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황금색은 브라만세계관에서 불멸을 상징하며 그 빛깔의 인간은 ‘제식적 선행(sukṛti)’의 열매를 저승에서 거두는 아그니호트라제를 수행한 불멸자이다(Bodewitz 1973: 109). 이러한 황금빛은 분노의 검은 색, 피의 붉은 색과 극명하게 대비된다(O’Flaherty, 1985: 39). 특히 죽음의 색인 검은 피부가 피의 강에 노출되면서 붉은색과 어우러져 시각적 공포를 자극한다. SB(11.6.1.7)에서는 브르구가 ‘공포감(bhaya)을 느낀다’는 직접적 표현을 통해 두려운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기도 한다. JB에서 다섯 번째 지옥세계를 피하는 방법으로 바루나가 언급한 것은 제식용 국자로 아그니호트라제의 공양물을 먹는 제례적이고 상징적 행위이다.

이러한 속죄의 제례적 행위들은 주법적이고 신비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숨겨진 다중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브르구가 목격한 네 번째, 여섯 번째 세계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세계는 아름다운 두 명의 여성이 큰 재산을 지키는 곳이다. 두 명의 여성은 제식에 대한 신뢰(śraddhā)와 불신뢰(āsraddhā)를 상징한다. 신뢰는 제주(祭主, yajamāna)가 제식에서 기원(祈願, āsis)한 것이 그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다. 제주가 바친 공덕(iṣṭa)이 실현되고 그 결과가 사후에 제주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해주는 순환시스템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제식과정의 성취가 그녀들이 지키는 재산이다. 재산(vitta)은 제식의 성과를 재물에 빚대어 설명한 것으로 JB(1.44)의 마지막 부분에 ‘제식의 공덕(iṣṭāpūrta)’으로 바뀌어 명시된다(Fushimi, 1997: 1007). 이 세계의 속죄로 바루나가 제시한 것은 공양음식을 ‘손가락으로 두 번 먹는 것’이다. 이러한 제식적 해법은 브르구가 목격한 여섯 번째 바루나의 세계(Varuṇaloka)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바루나의 세계는 수리아로카(Suryaloka)와 같은 빛의 세계(Patton, 2005: 231n7)로 그곳에는 다섯 개의 강이 흐른다. 바루나는 이곳을 얻는 방법도 “끓는 가마솥에서 국자로 우유를 퍼올리는 행위(pañcagrṛhita)와 다시 국자 안에 넣어 다섯 번 내리는 행위(pañcāconnīta)”라는 제례적 행위로 제시한다(Bodewitz, 1973: 104). 천계의 다섯 개의 강을 의미하는 공양물 우유를 다섯 번 위아래로 흐르게 하는 제례적 행위를 제장에서 동일하게 재현함으로써 그 세계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의미화한다.

JB의 후반부에 나타난 속죄의 양상을 종합해 본다면, 제식의 성취는 손가락으로 두 번 공양물을 섭취하는 제례적 행위로 속죄하고, 암시된 지옥은 제례용 국자로 섭취하는 것으로 속죄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속죄의 강도를 높이고 신성함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제식적 테크닉으로 채워진다. 수륙(śruc)이라는 작은 제례용 국자는 정화된 나무(palāśa, khadira)로만 제작된 브라만 사제의 전용 제구(祭具)이기 때문에 신성성을 높이는 전문도구로 활용된다. 결국 암시된 지옥은 제례용 국자(śruc)로 공양물을 먹는 신성한 제례행위로 해방될 수 있으며, 천계는 바루나세계에 흐르는 다섯 개의 강을 제례용 국자로 동일한 형태를 재현함으로써 제식적 상동화를 표상하면서 성취된다. 제식적 행위로 속죄를 이루고 천계를 얻는다는 제식이론은 제례적 행위가 바로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SB(11.2.7.33)에서는 이를 선악의 저울(tūla)에 비유한다.

이제 그 균형은 제단(祭壇, Vēdi)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놓인다.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sadhu)은 제단 안에 있고, 악한 일(asadhu)은 제단 밖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앉아서 제단이 오른쪽(남쪽) 가장자리에 닿아야 한다. 실제로 그들은 그를 저 세상에서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선인이든 악인이든 따라갈 것이다. 진실로 이것을 아는 자는 이생에서도 저울에 오르고 저승에서도 올라가는 일을 벗어날 수 있으니라. 왜냐하면 그의 선한 행위는 오르고 그의 악한 행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Smith, 1985: 303).

브라흐마나에서 선한 일(sadhu)은 제식에서 어떤 자리를 선점하는가에 의해 판단된다. 사후에 인간의 선악의 심판도 사회적 도덕이 아닌 제식적 금기위반에 의해 행해진다(Obeyesekere, 1980: 157). 바루나는 아그니호트라제에 맞게 나무를 잘라 제식의 불을 피우면 그것이 속죄가 되어 저승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할 수 있다(atimucyata)’고 단언한다. 이러한 바루나의 판단은 결과론적으로 아그니호트라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위가 죄이고, 내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다는 처벌의 논리로 이어진다. 후대의 카르마이론처럼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선악의 과보를 형성한다는 세련된 형태는 아니어도 제례적 ‘행위’가 천계와 지옥이라는 과보를 양산하는 원형적 형태로 나타난다.⁴⁾

IV. 죄와 속죄(niskṛti)의 문제

브르구는 저승에서 자신이 목격한 세계마다 질문을 던지지만 그 세계의 화자(話者)는 너의 아버지가 답을 알고 있다고만 대답한다. 이생에 돌아온 브르구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속죄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하고 바루나는 다음과 같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을 내려준다.

첫 번째 나무에 대한 속죄(niskṛti)는 “제식의 장작(samidh)을 불에 넣는 것”이다. 두 번째, 제식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간 가축에 대한 속죄는 말(vācā)로 표현[진언(mantra)의 독송]하는 첫 번째 봉헌(奉獻, āhuti)을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속죄는 제식에서 바쳐지는 대표적 곡물인 쌀과 보리의 경우로 이 경우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생각(意, manasā)에 따라 바치는 두 번째 봉헌(uttarām-āhuti)을 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제식적 결과에 대한 신뢰의 유무의 경우는 “손가락으로

4) Tull은 대표적인 초기 우파니샤드인 『찬도기야 우파니샤드』(Chāndogya-upaniṣad)와 『브리하드아라냐카 우파니샤드』(Bṛhadāranyaka Upaniṣad)의 카르마교리가 JB, SB의 병렬구조의 확장버전이라고 본다(Tull, 1985: 62-63). 이 네 문헌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초기 우파니샤드의 카르마이론도 브라흐마나의 맥락 안에서 연속성을 갖는 총체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브르구설화에 나타난 브라흐마나의 제식적 행위론의 모호함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우파니샤드의 카르마사상이 꽃피우게 된 것이며, 브라흐마나의 제식적 선행 같은 제례적 행위의 이론이 우파니샤드의 카르마설의 잠재적 씨앗이 된다고 보았다.

(gulyā) 잔여음식을 두 번(dvir) 먹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제례용 국자(śruc)로 먹는 방법이다 (Oertel, 1893: 236-238; Tsuji, 1978: 22-27).

JB에서 속죄는 *niskṛti*로 쓰였고, SB에서는 *prāyaścitti*가 사용된다. JB의 대표 번역자 보테워츠는 *expiation*, 병렬 텍스트인 SB의 번역자 에젤링은 *atonement*로 번역하여 두 학자 모두 속죄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Tsuji도 속죄(贖罪), Goto는 속죄법(贖罪法)으로 해석한다. 대다수 학자가 속죄라는 용어로 원문을 해석하지만 이러한 번역을 반대하는 학자는 Lomme, Doniger, Smith, Obeyesereke 등이 있으며, 판단을 유보한 학자로는 Schmidt와 Schmithausen을 들 수 있을 만큼 속죄의 해석은 논쟁적이다.

속죄의 번역에 반대하는 여러 의견 중에서 무엇보다도 Lommel(1950: 100)의 견해가 핵심적이다. 그는 브르구에피소드를 “동물을 먹지 마라, 저승에서 그들이 너희를 먹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JB의 세계는 일상세계가 아니라 제식적 세계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 동물, 식물은 일반적 생명이 아니라 제식에 사용되는 제물들이다. 가장 최상위 제물은 인간이며 다른 제물들은 인간의 대리자(surrogate)이기 때문에 브르구가 목격한 지옥의 환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행위는 끔찍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배다제식의 본질을 구현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제물을 먹어라, 그것이 바로 너의 몫이기 때문이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제식적 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도니거와 스미스는 속죄에는 ‘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에 반대한다(Smith & Doniger, 1989: 210). 특히 도니거는 속죄로 해석하게 되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가책적 시도(remorseful attempt)’가 이 단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피하게 하는 제식적이고 신중한 계획에 의한 회피(avoidance)나 복원/복구(restation)로 풀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oniger, 2010: 148; O’Flaherty, 1985: 39). 슈미트와 슈미트하우젠도 이에 공감하면서 *niskṛti*라는 산스크리트어가 갖고 있는 행위의 무효화 같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상기시키는 속죄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부연한다(Schmidt 1997: 14; Schmithausen, 2000: 259).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테워츠는 JB의 속죄가 후대의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속죄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사한다(Bodewitz, 2019: 149). 흥미로운 점은 속죄라는 해석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을 보인 학자들도 생명의 상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심과 관련된 ‘죄’의 측면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슈미트는 제장(祭場)에서의 제물의 상해와 살해를 무효화시키는 ‘진정(śānti) 의례’가 바루나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SB(3.8.5.8-10)에 주목한다. 특히 바루나신이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하는 올가미에서 풀려난다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제물에 대한 상해 자체가 잘못된 ‘죄’임을 넘기지 암시한다고 지적한다(Schmidt, 1997: 214-215; Schmithausen, 2000: 259). 도니거와 스미스도 제장에

서 제물을 살해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근심스러운 양심(disquieted consciousness)’의 ‘죄책감(guilty)’을 근거로 ‘죄’의 문제를 수용한다. 그리고 죄책감과 불안을 없애는 방법으로 고대인도의 제식주의자들이 고안한 제물살해의 전략적 근거(rationale)가 바로 사후세계를 여행하는 JB의 브르구설화의 서사라고 언급한다(Smith & Doniger, 1989: 209-210).

따라서 브르구설화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제식적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브라만과 제식주의자들이 불가피한 음식섭취에서 발생하는 ‘죄’를 제거하는 제식적 해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무, 식물, 동물을 상해하거나 살해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정당하게 취하라는 제식적 안내가 된다. 마치 유대교의 코셔(kosher)와 이슬람의 할랄(halal)의 교리처럼 신성한 음식을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과 같다(Doniger, 2010: 149). 본래 음식은 신의 것이며 신성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생존을 위해 부정한 행위로 음식을 섭취한다. 헤스터먼은 JB에 등장하는 나무, 곡물, 가축(소)들에 대한 상해와 그 살해과정인 나무 베기, 곡물섭취, 가축살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바로 ‘죄’임을 암시한다고 보았다(Heesterman, 1985: 89-90). 인간을 불길한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은 바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성이다. 이를 중화시키고 신성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제식이다. 즉, JB의 서사에는 음식을 소비하는 인간이 신성성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기반으로 한 도덕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시대적 사고가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다.

V. 결론

브라흐마나에서 천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제식이다. 제식은 제식을 바치는 제주가 사후에 자신의 몸을 형성할 물질인 공양음식을 공급받는 단순한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생에서 제식을 바친 제주는 자신의 이력서에 새겨진 제식의 공덕(iṣṭāpūrta)에 맞게 사후에 자신의 신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제식의 공덕은 일종의 보증금(deposit)처럼 조상의 신체를 이루는 영양분이 된다(Smith, 1985: 305).

천계(svarga)는 음식(anna)으로 뒷받침되는 세계이다. 쌀요리를 한 후 신들과 머무는 곳으로 지시되는 천계는 공양음식(svadhā)으로 가득한 곳이다. 사자가 저승에 머무는 기간은 전적으로 제식의 잔재인 음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것은 제식적 선행(sukṛta), 제식의 공덕(iṣṭāpūrta), 사제에게 주는 보수(dakṣiṇā) 등이다(Lopez, 1997: 13-15).

SB(10.1.5.4)에서는 제식의 공덕을 제식의 힘(yajña-vīrya)이라 부르는데 제식의 횟수와 제공해 주는 음식의 양에 따라 그 효능이 다르다. 브르구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아그니호트라제는 조

석(朝夕)공양제이므로 조상은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신체를 구성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다음으로 음식의 양이 많은 제식은 보름마다 행해지는 신만월제(新滿月祭, darsapūrnamasa)로 조상은 보름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다음은 4개월마다 행해지는 계절제(季節祭, cāturmāsyā), 6개월마다 행하는 동물제(動物祭, paśubandha), 1년마다 하는 소마제(soma祭)가 있는데 행해지는 기간에 맞게 조상에게 음식이 제공된다.

JB에서 바루나가 아들에게 전수하고자 한 지식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아그니호트라제를 아는 지식(vidvān agnihotra)’이다. JB(1.42)의 시작부분에서 바루나는 오만한 아들 브르구에게 참된 ‘지혜(prajña)’를 알려주겠다는 다짐을 한다. 자신의 이론적 지식의 우월함에 도취되어 있는 아들에게 실재의 본질을 아는 통찰력으로서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그의 호홉을 빼앗아 사후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아그니호트라제의 지혜는 ‘앎과 지식’으로 수사되는데, JB에서 브르구가 만난 첫 번째 세계에 대한 보데위츠와 오프래허티의 해석을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앎(knowing)이 없이 아그니호트라제를 바치고 나무를 베어 불에 태운다(Bodewitz, 1976: 103). 이 세상에서 제식을 바치지 않고 참지식(true knowledge)이 부족한 자들은 나무를 베어 불에 태운다(O’Flaherty, 1983: 33).

문맥상 유사하지만 보데위츠의 경우 아그니호트라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로 해석하여 모든 문제를 ‘무지’로 한정한다. 하지만 오프래허티는 제식을 바치지 않는 순전한 무지와 제식적 지식이 부족한 무지를 구분하여 두 가지 무지로 해석한다(Onozawa, 2002: 17). 아그니호트라 제식의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자는 브르구가 본 이들과처럼 저승에서 자신의 차례에 살해당한다. 그리고 제식을 운용하는 브라만을 모욕하거나 상해하면 피의 강에서 분노에게 심판받는다. 이러한 저승의 보복은 악에 대한 속죄법이자 신성한 아그니호트라제로 해결된다. 브르구가 목격한 지옥세계는 죄를 저지르고 보복을 당하는 죽음과 죽음의 불안정한 고리이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아그니호트라제의 세계는 해가 뜨고 지는, 낮과 밤이 순차적으로 교대하는 완전한 무해성의 세계이다. JB(1.8)에서 아그니호트라제는 모든 ‘악’을 몰아냈다고까지 묘사되면서 현생과 후생 모든 곳에서의 보상을 약속하고, SB(2.3.1.6)에서는 현생의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서 벗어나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뱀(ahi)이 자신의 껍질을 탈피하듯이 그것도(아그니호트라제: 태양의 아이)도 밤(rātra)과 악(pāpa)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그리고 진실로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 아그니호트라제를 바치는 사람은 뱀이 피부를 벗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악에서 벗어난다.

JB에서 바루나가 제시한 가르침은 베다의 학습적 지식이 아니라 제식적 행위의 지식, 즉 이

론적 지식이 아닌 행위론적 지식이다. 브라만과 제식주의자들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대중이 원하고 그들에게 제시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브리구에피소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JB의 스토리는 직관적 지옥과 상징적 지옥의 버전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브르구가 아버지의 설명을 듣듯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사후세계의 원리를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르타(rta)의 수호자인 바루나가 아들에게 참다운 지혜를 제공한다는 서사구조는 당대의 브라만세계관이 갖는 시대적 담론의 위기를 반영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재확립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공된다. 이야기 속에 죄와 속죄는 현재의 도덕적 모델리티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그 시대의 시각을 흥미진진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제식적 세계관 내에서의 죄와 악, 속죄와 천계의 문제를 심층적인 서사구조로 직조하고 있다.

JB에서 브르구는 저승에서 자신이 목격한 여섯 개의 세계에 대한 아버지 바루나의 설명을 듣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그니호트라제의 지식이라고 결론내린다. 이 지식은 베다의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제식적 행위에 대한 ‘앎(knowing)’이라는 점을 깨닫고 제단의 불을 피우기 위한 예비의례인 단식(upavastha)을 결심한다. 이로써 브르구서사를 읽는 독자는 브르구가 저승에 가기 전 몰두했던 베다독송의 지식(svāhyāya)의 무용성을 인식하고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이런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된다. 그리고 브르구서사가 전달한 제식의 지식과 지혜는 점차 죽음을 영원히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주체를 강조하는 내면화된 지식세계로 발전하게 된다. 재사(再死)를 전제로 한 브르구서사의 죽음과 지옥은 우파니샤드에서 본격화되는 재생(再生, punarjanma)과 윤회(輪廻, saṃsāra) 안에서 내면화된 ‘아트만(ātman)의 지식’이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다. 『타이트티리야 우파니샤드』(Taittirīya-upaniṣad) 제 3장 「브르구 발리」(Bṛgu-vallī)와 같은 바루나와 브르구의 문답의 ‘우파니샤드’라는 장르를 예고하는 것이다.

References

- Bodewitz, H. W. (1973). *Jaiminīya Brāhmaṇa I, 1-65: Translation and Commentary, With a Study: Agnihotra and Prāṇāgnihotra*. Leiden: E. J. Brill.
- Bodewitz, H. W. (1976). *The Daily Evening and Morning Offering: (Agnihotra) According to the Brāhmaṇas*. Leiden: E. J. Brill.
- Bodewitz, H. W. (1990). *The Jyotistoma Ritual: Jaiminiya Brahmana I, 1-65*. Leiden: E. J. Brill.
- Bodewitz, H. W. (2019). *Vedic Cosmology and Ethics*. Leiden: E. J. Brill.
- Day, T. (2006). *The Conception of Punishment in Early Indian Literature*. Waterloo, Ont.:

-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Deussen, P. (1966). *The Philosophy of the Upanishads*. trans. A. S. Gede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Doniger, W. (2010). *The Hindus: An Alternative History*. Oxford: Oxford OUP.
- Doniger, W. (2022). Gods as Difficult Guests in Greek and Indian Mythology.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89(1), 1-19.
- Eggeling, J. (1882 - 1900). *Satapatha Brahmana*. 5vols. Oxford: Clarendon.
- Fushimi, M. (1997). The Story of Bhrgu.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45(2), 1010-1006.
- Goto, T. (2008). An Overview of Ancient Indian Ritual Ceremonies: Form, Structure, and Principles. *Comprehensive Human Studies Series*, 3, 57-102.
- Gupta, M. D. (2019). Understanding the Metaphors of Pratyadant in the Story of Bhrgu(Jaiminiya Brāhmaṇa 1. 42-44). *The 7th International Vedic Workshop*. Dubrovnik, Croatia.
- Heesterman, J. C. (1985). *The Inner Conflict of Tradition*.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Keith, A. B. (1919). *Rigveda Brahmanas: the Aitareya and Kauṣītaki Brāhmaṇas of the Rigved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eith, A. B. (1925).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Veda and Upanishads*. 2 vo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Keith, A. B. (1959). State of the Dead (Hinduism). In vol. 11 of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Ed. James Hastings, et. al. 13 vols. Edinburgh: T. & T. Clark, 843-847.
- Kim, C. Y. (2013). A Study on Death and Afterlife Conceptions in the Early Vedas.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7, 5-33.
- Lommel, H. (1950). Bhṛigu im Jenseits. *Paideuma*, 4, 93-109.
- Lommel, H. (1952). Nachtrag zu Bhṛigu im Jenseits. *Paideuma*, 5, 201-202.
- Lopez, C. (1997). Food and Immortality in the Veda: A Gastronomic Theology?. *Electronic Journal of Vedic Studies*, 3(3), 11-19.
- Macdonell, A. A. (1974). *Vedic Mythology*. Delhi: Motilal.
- Merh, K. P. (1996). *Yama: The Glorious Lord of the Other World*. New Delhi: D.K. Printworld Ltd.
- O'Flaherty, W. D. (1985). *Tales of Sex and Violence: Folklore, Sacrifice, and Danger in the Jaiminiya Brahman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beyesekere, G. (1980). Rebirth Eschatology and its Transformations. O'Flaherty, W. Doniger.

- (ed.). *Karma and Rebirth in Classical Indian Tradi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37-164.
- Oertel, H. (1893). Extracts from the Jāiminīya-Brāhmaṇa and Upanishad-Brāhmaṇ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5, 233-251.
- Onozawa, Y. (2002). *An Analysis of Hell-Narratives in Early Hinduism and Theravada Buddh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askatchewan.
- Patton, L. L. (2005). *Bringing the Gods to Mind: Mantra and Ritual in Early Indian Sacrifi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midt, Hanns-Peter. (1997). "Ahimsa and Rebirth". In: M. Witzel (ed.) *Inside the Texts Beyond the Texts: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Vedas* vol.2, Cambridge, Mass: Harvard Oriental Series Opera Minora 2.
- Schmithausen, L. (2000). A Note on the Origin of Ahimsā. In: Ryutaro Tsuchida and Albrecht Wezler (Hrsg.), *Harānandalaharī*. Reinbek: Dr. Inge Wezler, 253-282.
- Schwerda, P. F. (2017). *Ordering the Cosmos: An Analysis of Religion and Society as Portrayed in the Jaiminīya Brāhmaṇa, South Asian Stu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Smith, B. K. & Doniger, W. (1989). Sacrifice and Substitution: Ritual Mystification and Mythical Demystification. *Numen*, 36, 189-224.
- Smith, B. K. (1985). Gods and Men in Vedic Ritualism: Toward a Hierarchy of Resemblance. *History of Religions*, 24(4), 291-307.
- Tsuji, N. (1978). *Ancient Indian tales: from Brāhmaṇa Literature*. Tokyo: Shunjusha.
- Tull, H. W. (1985). *Karma and Death in the World of the Vedic Sacrif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